음식을 통해 보는 북한: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김양희 | 기획재정부 사무관 | yang275@korea.kr

Ⅰ. 들어가며

핸드폰만 열어도 모든 궁금한 점이 해결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 만큼 북한에 대한 정보도 이전에 비해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재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북한경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하지만 북한에서 공개하는 통계수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상대국의 발표에 의존한 무역통계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닐까 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조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북한경제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도 하고 있을 정도이니 북한 연구자들은 이미 기름을 다 짜낸 깨를 몇 번이고 쥐어짜듯, 작은 정보하나로도 북한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곤 한다. 실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현지지도 같은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고 엘리트들이 주요행사에서 호명되는 순서를 분석하며 앞으로 북한의 정책 등을 전망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을 통해서 북한사회를 분석하는 책이 나왔다.

Ⅱ. 주요내용

1. 북미정상회담 결렬 분석, 어디까지 해보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첫날 한 라디오 방송과 깜짝 인터뷰를 하며 지난 2019년 가장 아쉬웠던 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특히 아쉬웠던 건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진전이 있었더라면 한반도 평화도 남북협력도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당시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북미간 협상 결과 합의문 채택이 불발되면서 무산되었다.

당시 2019년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회담보다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세부 진행 방법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 세계가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김정은 위원장은 60시간이나 걸리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4,500km를 이동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를 펼쳤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된 중요 이슈인 만큼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중계됐다.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이유에 대한 연구를 했고,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했었다.

여러 분석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 측은 무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책에서는 음식을 통해 미국 측이 협상 이전부터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아예 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2. 미국 측은 협상이 깨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라는 책은 식품과 북한을 전공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사무관에 재직 중인 저자가 '음식을 통해 보는 북한'이라는 콘셉트로 평양랭면, 대동강숭어국, 가자미식혜, 명태순대 등 북한의 향토 음식뿐 아니라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는 채널이 배급제에서 시장으로 바뀐 북한 사회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음식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화해와 평화에 기여했던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미정상의 식탁을 담당했던 요리사들의 뒷이야기를 통해 미국 측이 처음부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9년 2월 28일, 당시 이틀째를 맞은 2차 북미정상회담 오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취소하고 회담을 중단했다. 오찬 장소인 '르 클럽 바'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고 메뉴와 명패까지 준비되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대한 식사부터 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러 '소박하게' 메뉴를 구성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백악관 측은 회담 이전부터 '만찬 메뉴를 아주 간단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었다고 한다.

메트로폴호텔이 회담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회담 사흘 전, 양국 정상의 식사 메뉴 확정은 회담 이틀 전에 이뤄졌다. 당시 미국 측은 '슈퍼 심플' 코스 메뉴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다양한 메뉴를 원했다. 때문에 조정이 어려웠으나 양측이 협의를 거쳐 첫날 만찬에서 네 가지 메뉴를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 때 여러 메뉴를 선보이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데 반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네 가지 코스요리를 내놓은 것이니 미국 측의 요구대로 간소한 메뉴로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 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 텐데 간소한 메뉴만을 고집한 것은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협상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메뉴가 결정된 회담 이틀 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참 전용열차로 하노이를 향해 달리고 있던 중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한참을 노력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었던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서로 간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도 한 원인이 됐다.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한 코언의 청문회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같은 날 열렸다. 당시 미국 언론은 북미정상회담 소식보다 청문회 뉴스로 도배를 했고, 모든 이목이 코언 청문회로 집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릴 상황이라 처음부터 판을 깰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배급제, 주민들에 대한 유용한 통제 수단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책에서는 음식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고 있다. 배급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구하는 채널의 변화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 성립기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까지 주민들의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배급제이다. 북한이 배급제를 수십 년 동안 운영한 것과 달리,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던 시기 또는 전쟁 시기 공산주의 상태에서 국가가 부족한 물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을 뿐이었다. 초기 북한의 배급제 역시 해방 후 철도 등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비를 국가가 담보해 준다는 의미로 배급제를 시행해 온 것이다. 또한 북한의 배급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식량의 고른 분배와 낭비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데,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정해 준 양 이상으로 식량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량권 등 사회급양 시설을 통한 배분은 국가 권력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까지 개입한 것이었다. 출장이나 친척 집을 방문할 때조차 량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식량을 철저히 통제할 뿐 아니라, 주민들 개개인의 지역 이동까지 국가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북한 당국은 식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을 유용하게 통제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1973년부터 '전쟁비축미'라는 명목으로 기준 배급량에서 12%를 공제해 오다가 1987년부터는 '애국미'라는 명목을 붙여 10%를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2%를 감량해 배급하기에 이르렀다.

4. 배급제의 붕괴로 태어난 민족 음식 강조 분위기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북한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하고 말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식량난 때문에 주민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등 사회 곳곳에서 견고했던 질서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혼란은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단단히 붙잡아 줄 구심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해법을 민족성과 애국심에서 찾았다. 민족성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음식문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민족 음식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김정일 전위원장은 "민족 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적인 민족 음식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라며 민족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각 구역과 군(郡)에 한 개씩의 민족 식당과 대여섯개씩의 민족 음식 전문화 식당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들을 민족 음식 계발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각 지방의 향토 음식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5. 100명 이상의 100억원대 자산가

이후 북한에서는 시장을 통해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당국은 배급제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미 1964년부터 농민시장을 허용했다. 농민시장은 농민들이 남는 농산물을 가져와 파는 시장으로서 농촌에서 소소하게 운영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남는 재료 등으로 만든 생필품까지 거래되면서 규모가 더욱더 커졌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가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북한 당국은 2003년 공식적으로 시장을 허용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도 시장이 확대되면서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주민들 사이의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처음 시장이 생길 때만 해도 개개인이 그저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물물교환을 하거나 약간의 돈을 굴리는 수준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팔기 위해 텃밭에서 채소나 곡물을 재배했고, 이를 활용해 술과 두부 등을 만들거나 돼지나 토끼, 닭 등의 가축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팔아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부수입 덕분에 북한 주민에게 얼마간 삶의 여유가 생겼다. 오히려 배급제가 제대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술이나 돼지고기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시장에 개개인 판매자들뿐 아니라 우리로 치면 회사 격인 기관이나 기업소 등이 나서고 있다. 이런 기관이나 기업소들은 중국, 러시아 등과 적극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큰돈을

벌어들인다.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시기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각 기관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벌어 운영할 것을 지시하고 상업적 활동과 시장 참여를 허용해 주었다. 1990년대 초 각 기관이나 기업소별로 식량 배급의 자체해결 지시가 하달되자 식량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체계가 만들어졌고, 이후 북한의 당, 군, 정의 거의 모든 기관이 자체 무역회사를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섰다.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돈주'라고 부르는데, 평양을 연구한 숙명여대의 곽인옥 교수는 "북한에 '돈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돈으로 100억원대 자산가도 100명이 넘는다"라고 지난 2016년 발표하기도 했다.[1)]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를 보면, 예전에는 굶주림에 직면해 먹고살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공부나 성공 같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탈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드물긴 하지만 북한에서 훨씬 더 잘살았는데 남한에 와서 좁은 집에 살려니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6. 동대문시장 규모의 대형 시장만 총 9개

통일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남한의 동대문시장만큼 큰 시장이 9개 정도 되며 총 개수는 400여개가 넘는다.[2)]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돈을 벌게 되자, 식생활도 개선되었다. 배급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주민들은 배급되는 품목에 의해 식생활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먹으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식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배급제가 붕괴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후에 북한주민들의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진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평소에는 식량이 보름마다 한 번씩 배급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돈주들만이 아니라 짐을 날라주며 하루 벌이를 하는 하층민들에게도 일거리를 제공해 줘 시장을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서 비축해 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곡물 생산량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었다. 시장의 확대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잘 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탈북 직전의 식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눈여겨볼 건 2015년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2018년 조사에서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87.4%였고, 고기를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먹는다는

1) 『mbc뉴스』, 2016년 12월 30일.
2)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6, pp.17~18, p.26.

응답이 44.8%로 나타났다는 점이다.[3] 이는 2012년 24.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북한에서 살 때의 거주지역이 국경 근처 등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사대상임을 고려할 때 평양 등의 지역에서는 식생활 수준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나가며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책에서는 이 같은 북한 사회의 변화 외에도 2019년 7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13만 3,320명)의 50%가 넘는 7만 9,194명이 사망하는 등 고령자의 이산가족 문제 및 새로운 이산가족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최소한 면회소 설치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북한이 고향인 문배주를 다시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깜짝 남북경협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지난 2007년 이산가족상봉의 수혜자인 북한 어린이들의 반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평화와 화해의 음식이라 부제가 붙은 3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북미관계 등의 내용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이 책에는 단순히 북한 음식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에 담겨있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담겨 있다. 독자들이 음식을 통해 북한과 남북교류협력, 통일을 한번쯤 떠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한다.

3) 천경효 외, 『북한 사회변동 2018: 시장화, 정보화, 시장분화,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34, p.39.